

제15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 귀국전 〈용적률 게임〉 오프닝 진행

일시 : 2017.3.3.(금) 오후6시

장소 : 제1전시실, 아카이브라운지

사회 : 시각예술부 이영주 과장

■ 주요참석인사

로디 엠브레흐츠(네덜란드대사), 바르토메우 마리(국립현대미술관장), 송인호 (서울역사박물관장), 윤승현 [(사)새건축사협회회장], 조성룡(2006년 한국관 커미셔너), 권문성(2010 한국관 커미셔너), 조민석(2014 한국관 커미셔너), 김영준(도시건축 대표, 서울총괄건축가), 김태형(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 배형민(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등 건축, 문화계 인사 150여명 참석 예정

※ 바르토메우 마리 관장 (17:30~18:00 관람예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창욱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식순

시간	내용	진행	비고
18:00-18:03	오프닝 멘트	이영주	
18:03-18:05	김창욱 본부장 인사말	김창욱 본부장	
18:05-18:10	예술감독, 큐레이터, 후원사 소개	이영주	네덜란드 대사 소개 마리 관장 언급
18:10-18:15	인사말, 주요인사(건축) 소개 등	김성홍 예술감독	
18:15-18:20	36팀 건축가 및 4명 작가 소개	정이삭 큐레이터	
18:20-18:23	축사	조성룡	2006 커미셔너
18:23-18:25	참여 소감	김인철	참여 건축가
18:25	클로징 멘트, 리셉션 안내	이영주	
18:25-20:00	전시관람 및 다과	-	2층 라운지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시각예술본부장 김창욱입니다. 작년에 세계 건축인들의 주목을 받았던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의 전시 <용적률 게임>전을 아르코미술관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1986년 베니스비엔날레에 처음으로 참여했고, 1995년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자르디니내에 한국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관의 커미셔너를 맡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매년 미술전·건축전을 통해 베니스비엔날레와 인연을 맺으며 한국의 예술과 예술가들을 세계에 알리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최한 2016년 국제건축전은 우리 위원회가 10번째로 개최한 건축 전시입니다. 한국관은 김성홍 예술 감독을 비롯하여 5명의 젊은 큐레이터들이 주축이 되어 <용적률 게임>이라는 전시를 선보였습니다. <용적률 게임>전은 한국 건축의 특성이자 서울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키워드인 ‘용적률’을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관 전시를 위해 수개월간 큐레이터들은 공동 작업을 하며 함께 연구하고 분석하고 비평하며 우리 사회에서 용적률 게임이 갖는 의미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용적률 게임>전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다시 팀을 이뤄 전시를 재구성해준 큐레이터, 참여건축가, 작가, 스텝 등 모든 전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베니스비엔날레를 통해 한국 예술이 세계와 만나 교류하며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막식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

■ 소개

○ 이영주 소개

- 로디 엠브레흐츠(주한 네덜란드 대사), 바르토메우 마리(국립현대미술관장), 송인호 (서울역사박물관장), 윤승현 [(사)새건축사협의회회장]
- 후원사 : 강연섭 대표(인스파이어), 최항순 회장(두오모), 이종희 상무(두오모)
 - * 언급 : LG전자, 김민규 대표(복순도가)
- 김성홍 예술감독/ 신은기, 안기현, 김승범, 정이삭, 정다운(이상 큐레이터)

○ 김성홍 소개

- 감사: 박명진 위원장, 김창욱 본부장, 국제교류부 임수연, 변서영, 시각예술부 이영주, 임서진님
- 조성룡(2006년 한국관 커미셔너), 권문성(2010 한국관 커미셔너), 조민석(2014 한국관 커미셔너)
- 김영준(서울총괄건축가), 김태형(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 배형민(2017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총감독)
- 박길룡 교수, 최동규, 이성관, 이상림 건축가를 비롯한 건축계 인사

○ 정이삭 소개

- 36팀 건축가 (별첨 자료)
- 4명 작가 (강성은, 백승우, 정연두, 신경섭)
- 스태프: 도형록외
- 그래픽디자인 정진열, TEXT 최세진 팀장
- 건축모형 심현기 대표
- 영상제작 The Docent 백윤석 대표
- Space Books 박성진 편집장, 박계현 기자
- 도록 번역: 이종우 선생님
- 자문단: 최문규, 임재용, 이충기, 박철수, 리차드이노스
- 대회홍보 협력: 신혜원, 한소영
- 부대프로그램 공동기획: 정립건축문화재단 박성태 국장

■ 축사

- 2006 커미셔너 조성룡 성균관대 석좌교수

■ 참여소감 ○ 김인철 교수, 아르키움 대표

본부장님 인사말씀처럼 2016년은 1996년 베니스에 한국건축이 받을 처음 내 디딘지 10번째 해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가 기관으로 커미셔너를 맡고, 예술감독이 전시를 끌고가는 체제로 바뀐 첫 번째 해였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전폭적이고 세심한 지원 때문에 전시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박명진 위원장님, 김창욱 본부장님, 국제교류부 임수연, 변서영님, 시각예술부 이영주, 임서진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홉 분의 커미셔너 중, 김석철, 정기용 두 분이 작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분의 전임 커미셔너께서 오셨습니다. 2006년 조성룡 커미셔너, 2010년 권문성 커미셔너, 2014년 조민석 커미셔너께서 오셨습니다.

건축 문화예술계의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김영준 서울총괄건축가님,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님, 배형민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님 자리하셨습니다.

박길룡 교수님, 최동규, 이성관, 이상림 건축가를 비롯한 선배 건축인, 동료, 후배 건축인들이 자리를 하셨습니다. 일일이 소개드리지 못하지만 고맙습니다.

저와 함께 전시를 준비한 다섯 분의 공동큐레이터를 포함 많은 분들을 전시에 동참하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이삭 큐레이터께서 곧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적률 게임은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사회의 숨은 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건축가들이 마주하고, 넘어야 할 전투의 현장이며, 혁신과 창의 의 제약이자 동인이기도 합니다.

‘용적률 게임’이 다음 세대의 건축가를 위해 화두를 던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건축계를 넘어, 대중과 이야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시를 둘러보시고, 담소는 나누는 편안한 저녁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